

# 설날 즈음에 읽는 우리 전통의 풍성함

의·식·주·민속놀이 등 문화사적 내용 담은 책들

설날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풍요롭고 설렘이었다. 비록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삶은 피곤하지만 다가오는 설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그 한결같은 것은 바로 우리 옛 것으로부터 나온다. 돌멩이 하나로 하루가 즐거운 소박한 놀이, 세월이 지날수록 정겨워지는 생활용품들, 품위 있고 맛깔스런 우리의 생활 음식,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공간. 설날을 맞아 우리 전통을 생각해 본다. 주로 생활에서 문화사적 의미를 길어올린 내용의 책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 ■ 아이들 민속놀이 100가지

설날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시간이다. 오랜만에 모인 친척 아이들은 모여서 연날리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를 한다. 《아이들 민속놀이 100가지》는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전통놀이 100가지를 뽑아 소개한 책이다. 술래잡기 등 맨 손으로도 한나절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도 많고 축구공이 없었던 시절 얼음 위에서 하던 얼음축구, 지금은 거의 사라져 버린 자치기 등 옛날 아이들이 즐겼던 놀이들을 소개했다. 이번 설날은 전자오락 대신 재미있는 전통놀이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김종만/우리교육)

## ■ 우리나라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민중의 오랜 역사적 체험에 의한 슬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민속놀이》는 우리 고유의 놀이를 집대성한 것으로 이제는 민속경연대회장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규모가 큰 놀이부터 작은 돌 하나로 할 수 있는 아이들 놀이까지 63가지 놀이를 소개했다. 돌멩이를 가지고 하는 우리식 장기 고누·공기놀이·비석차기, 줄이나 실로 노는 실뜨기·줄넘기·고무줄놀이 등도

소중하게 다뤘다. 소박한 어린이 놀이에도 체력과 지능의 발달을 돕는 지혜로운 속담이 있음을 알려준다. (심우성/동문선)

## ■ 잊혀진 옛놀이

25년간 한국 풍속화를 그렸던 인형작가 김영철씨가 아련한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되살려 놓았다. 《잊혀진 옛놀이》는 이제 추억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된 옛 놀이들



인형으로 재현해 놓은 책이다. 얼어 붙은 눈에서 팽이치기 시험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대로 20여년 전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다. 봄은 땡땡하게 얼

어도 팽이치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시절은 못 먹고 못 살아도 풍요로웠던 듯 하다. 따뜻한 정감이 배어 있는 인형의 모습에 책을 넘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떠오를 것이다. (김영철/포인트라인)

## ■ 우리의 전통예절

우리 민족은 예를 소중히 여겨왔다. 모든 일에는 법도라는 것이 있고, 격식이 있었다. 《한국의 전통예절》은 외래문화의 유입과 가족제도의 변화로 흔들리는 전통 예절을 의·식·주 전반에 걸쳐 되살려 놓았다. 개인·가정·직장·사회예절 등 실제 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도 있고, 행사와 음식예절, 관례·혼례·상례·제례의 의미와 절차, 복식의 변화와 의례복식, 한복 입는 법까지 그림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일반 상차림에서 명절 음식 상차림과 한국 음식의 법도를 통해 생활 속까지 배어 있던 예절을 살폈다. (김득중 외/한국문화재보호재단)

## ■ 옛살림 옛문화이야기

부엌이나 마루 한켠에 놓인 생활용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된 친구처럼 정겨워진다. 하지만 스테인레스나 플라스틱으로 바뀌어버린 우리 생활용품에서는 이제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없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사상에 올릴 낡은 목기, 목이 긴 술병이 그리워진다. 민예품을 중심으로 우리 옛 문화를 음미한 《옛살림 옛문화이야기》는 지금은 민속박물관에 있을 법한 옹기, 자배기 등 옛 물건을 우리 앞에 불러온다. 지금도 얼마든지 요긴한 민예품, 이 책을 보면 그것들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김용태/대경출판)

## ■ 우리의 부엌살림

설날이 오면 가장 바쁜 곳은 부엌이었다. 종일 기름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들락거렸다. 《우리의 부엌살림》은 군불 때던 부뚜막에서 살갓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통 부엌과 그 안에서 두루 갖추어 쓰던 이남박, 뒤옹박, 동방구리, 반병두리, 수란뜨개, 곱돌



술 등 부엌살림 용구 200

여점을 사진자료와 함께 실

어놓았다. 설날에 먹어보던 음식들이 엄마의 숨겨졌는지, 이름도 신기한 그 아기자기한 그 물건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이 모든 부엌용품을 모아들이고 불분명한 용도를 추적하는데 8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박옥담·윤숙자/살과꿈)

## ■ 우리 옛건축에 담긴 표정들

초가집이 민초들의 삶이 깃들인 집이라면 궁궐이나 성곽, 사찰, 서원은 예술품이다. 어루만져 광을 내고, 그윽히 바라보며 감상하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우리 옛건축에 담긴 표정들》은 젊은 현대 건축가가 찾아낸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인 동시에 우리 예술의 원형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한국 건축들이 유난히 자연을 닮고, 그 공간이 전통 회화의 여백처럼 막힘 없이 흐르는 것은 우리 조상이 예술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류경수/대원사)

## ■ 한국의 전통초가

짜리나무로 엮어 만든 사립문, 빗자루 자국이 금방 빗질해 놓은 머리 같던 흙마당. 밤이면 지붕을 불빛처럼 환하게 밝히던 조롱박들. 한때는 가난과 구태의 상징으로 없애야 할 대상이었던 초가집은 이제 따뜻한 고향의 이미지로 떠오른다. 전국 오지와 연변 등지로 초가집을 찾아다니던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곁들인 《한국의 전통초가》로 초가의 포근함을 되살렸다. 전통 주거의 변천과 그 역사, 초가집의 종류와 집짓기의 실제, 초가의 지역적 특징 및 형태 등 초가집의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은 직접 찍은 풍부한 사진도 볼만하다. (윤원태/재원)

## ■ 우리 옛집 이야기

따뜻함과 안락함을 불러일으키는 집은 창

〈그밖에 한국의 전통 관련서들〉

분야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
문화	전통문화산책	이광규	서울대출판부
	한국의 문화전통	한영우	을유문화사
	한국의 전통문화	최영선	한림대출판부
	한국의 전통문화	편집부	국립중앙박물관
옷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 한복	편집부	라사라
	전통한복구성	박영순	신양사
	전통한복양식	손경자	교문사
	겨울한복	뿌리깊은나무	대원사
	한국인의 옷	조효순	밀알
음식	명절 전통상차림 요리	편집부	웅진
	떡·한과·명절의식·전통음료	편집부	서울문화사
	전통음식	한복진	대원사
	한국의 전통음식	황혜성	교문사
주거	한국의 부엌	김광연	대원사
	한국의 전통 마을	편집부	수서원
	한국의 전통건축	장경호	문예출판사
놀이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이종명	배영사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리재선	한국문화사
	전통칠고놀이	편집부	현암사
	팽글팽글 팽이이야기	인병선	현암사
	놀이보따리: 골목·민속놀이편	전국재	윤킴
민속놀이	김광연	대원사	

호지문, 고소한 장작냄새, 굴뚝의 연기가 어우러져야 제격이다. 하지만 전통가옥은 “재벽종이 울리고, 새 아침이 밝”을 때 모두 없어졌다. 《우리 옛집 이야기》는 실내디자인 및 주거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전통가옥의 모든 것을 살살이 뒤졌다. 목조가구식 구조의 발달과 좌식용 목가구, 마루와 온돌, 우리식 가옥이 만들어지기까지 기후와 문화·사회적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 정성껏 찍은 사진과 함께 감상하다 보면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이 새록새록 샘솟는다. (박영순 외/열화당)

■ 한국의 전통 민속주

명절을 명절답게 하는 것은 역시 술이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아침상에서 차례상에 올렸던 술이 반주로 빠질 수 없고 대보름에는 귀밝이 술도 마신다. 조금씩 먹은 술에 취해 때로는 가족간에 묻어두었던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술 덕분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도로 풀어진다. 《한국의 전통 민속주》는 식품학을 전공한 저자의 우리 술에 대한 보고서다. 술의 역사가 있고, 우리 민족이 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효능·만드는 법도 있다. 책을 읽으며 그 독하다는 ‘문배주’도 직접 한번 빚어보고, 향기 그윽하다는 ‘송주(松酒)’에도 취해보고 싶다. (이효지/한양대출판부)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음식 백가지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 보유자인 황혜성씨의 두말 한복진·한복려 교수가 합심해 만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음식 백가지》는 전통 음식이 얼마나 풍요롭고, 맛있고, 품위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명절은 무엇보다 풍성한 식탁이 돋보이는 하루. 고기와 생선, 향기로운 나물이 가득한 책은 만드는 법 뿐만 아니라 영양가, 음식의 유래, 우리 민족에게 그 음식과 재료가 갖는 의미 등 문화사적 의미까지 담백 들었다. 음식도 맛있겠거니와 곁들여진 이야기가 씹는 맛이 있다. (한복진/현암사)

— 이현주 기자

※ 에라스무스

· 롤란드 베인턴 지음/408면/양장·신국판/값12,000원  
베인턴 교수의 뛰어난 역작으로 손꼽히는 저술이다. 이 저술들은 인문주의와 종교개혁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이미 확고한 고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베인턴 교수는 예일 대학에서 오랫동안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을 연구하고 가르쳤으며, 이 방면의 세계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의 원제는 「그리스도교 세계의 에라스무스」인데, 제목 자체가 에라스무스에 대한 저자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혼란스러운 종교개혁의 와중에서 에라스무스는 카톨릭 교회에도 프로테스탄트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외롭고 힘든 중용의 길을 택했다. 그는 양 진영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양진영에 의해 동일하게 무시되었다. 그렇지만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치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염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인물로 재평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20세기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라스무스는 우리시대를 위해서도 참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인물이다.



※ 톨스토이의 지혜의 달력

· 톨스토이 지음/384면/양장/값10,000원

모든 작가들은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태어났다고 믿는다. 톨스토이는 그에게 있어 이러한 책이 「지혜의 달력」이라 믿었다. 역사 속의 완전한 예술가 한 사람과 조물주가 만들어낸 심오하고 열의에 찬 걸작이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톨스토이 자신이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 말년의 작품이다. 혁명 전에 러시아에서 널리 읽히다 공산주의가 들어서자 판금되어 잊혀진 「지혜의 달력」은 최근에 다시 발견되었다. 이 책은 희미해지지 않는 빛으로 가득찬 매일의 지침이다.



※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 토머스 불핀치 지음/202면/값 5,000원

그리스 로마 신화와 북구 신화 다음으로 꼭 알아야 할 신화는 켈트족의 신화인데, 그 주인공 중의 하나는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다. 또한 이것은 다른 신화와 달리 기독교적 전설이다. 저자는 현대 유럽국가가 태동하던 시기의 기사들 이야기를 현대감각에 맞추어 다루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필독 도서이다.



※ 표준 서양철학사

· 프랭크 킬리 지음/양장·신국판/840면/값 25,000원

십수 년만에 국내에 처음 나온 본격적인 철학사 교재! 철학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 철학교수가 쓴 책으로 오랫동안 미국대학에서 표준적으로 쓰이고 있다. 초판은 1914년, 2판은 1951년, 제3판은 1956년 레저 우드 교수에 의해 개정 증보되었다. 미국 각 대학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참고서로 유용하게 쓰여왔던 책은 거의 없다.



※ 플루타르크 영웅전 선집

· 신국판/432면/값 10,000원

〈플루타르크 영웅전〉은 모두 50명의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들의 생애를 이야기하며 비교하고 있다. 영웅전 전체는 상당히 방대하다(신국판 약 2,000면),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고전총서를 발간하면서, 그중 반드시 읽어야 할 9명의 영웅전을 모아 한 권으로 출판하였는데, 본 역서는 바로 그 책이다. 이 책만큼 인류의 영원한 재산이라고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책은 드물다.



※ 로마의 건설자들

· 플루타르크 지음/신국판/370면/값 9,000원

〈플루타르크 영웅전〉 중에서 로마를 세운 대표적인 인물 9인의 전기만을 따로 엮은 것이다.



※ 청소년을 위한 그리스 신화

· W.H.D 라우스 지음/신국판/280면/값 5,500원

20세기의 훌륭한 그리스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라우스는 훌륭한 선생님이자 만담가였다. 그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그리스 신화를 소개하는 탁월한 입문서를 만들었다. 알기쉽게 쓴 최상의 안내서이다.



※ 한 권으로 읽는 셰익스피어 이야기

· 찰스 램 지음/신국판/383면/값 8,500원

셰익스피어의 대표적 작품 20편을 읽기 쉽게 산문체로 다이제스트 하였으며, 거의 2세기 동안 셰익스피어 이야기의 요약의 걸작으로 인정받았다. 부록으로 그의 전작품 37편의 요약이 첨부되어 있으며,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해설이 자세히 붙어있다.



인문학 전문 출판

현대지성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5-1(임팩트/D304호)  
· 전화 588-9864 · 팩스 588-5267